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월드클래스급의 스타 ‘제2의 김연아’, ‘제2의 정성옥’이 빛난다



김학수

한국체육대학교 초빙교수
스포츠저널리즘 전공
스포츠미디어와 스포츠역사에 관심
kimbundang@hanmail.net

남북한은 1972년 뮌헨 올림픽이후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성적을 올렸다. 북한의 사격 이호준은 뮌헨 올림픽에서 남북스포츠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남한의 레슬링 양정모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딴 주인공이 됐다. 지난 수십년간 남북한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많은 우승자를 배출했다.

그동안 남북한스포츠에서 최고의 월드 클래스 스타로 꼽는 선수는 누구일까? 남한에서 최고의 선수로 주목받는 이는 아마도 피겨여왕 김연아라는데 별 이견이 없다. 김연아가 2016년 대한체육회가 뽑은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2011년 스포츠영웅이 제정된 이후 김연아는 역대 최연소 기록을 남겼다. 한국의 스포츠영웅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고(故) 손기정, 해방 후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역도의 고(故) 김성집, 1947년 보스턴마라톤대회 우승자



출처: shutterstock

인 서윤복, 한국스포츠 근대화의 토대를 다진 고(故) 민관식,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레슬링의 장창선, 한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양정모, 제5회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최우수선수(MVP) 박신자,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고 태권도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시킨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 및 대한체육회장이 선정됐다. 이 중에서 김연아는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 불모지였던 한국 여자피겨를 단숨에 세계 무대로 끌어올린 김연아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하며 세계 최고의 선수로 각광을 받아 역대 스포츠 스타 가운데 최고라는 찬사를 들었다.

북한은 최고의 선수로 1999년 세비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마라톤 우승자 정성옥을 꼽는다. 이는 북한 당국을 포함해 탈북자 등 여러 곳의 평가를 통해서도 밝혀졌다. 당시 2시간26분59초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한 정성옥은 남북을 통틀어 아직까지 유일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우승자로 남아 있다. 그의 존재감은 북한 사회에서 스포츠 선수로는 최고로 자리잡았다. 정성옥이 우승을 차지하고 돌아온 환영행사에는 평양 시민 100만명이 운집해 기쁨을 함께 했다. 북한 체육인들은 공적에 따라 체육명수, 공훈체육인, 인민체육인, 노력영웅, 공화국 영웅 등의 칭호를 받는데, 정성옥에게는 북한 체육인 최초의 공화국 영웅 칭호가 주어졌다. 이외에도 그는 선물로 벤츠 S550,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자격등과 함께 우승상금 5만달러, 평양의 고급주택 입주 등의 혜택을 받았다. 정성옥은 평범한 지방 노동자 가족출신에서 북한을 대표하는 신데렐라로 급부상했던 것이다.

남북한이 역대 월드클래스급 스타들을 보유한다는 사실은 남북한 스포츠의 경쟁력을 세계스포츠 무대에 서 입증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김연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직접 자신이 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2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3번째 만에 유치를 성공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 세계스포츠 무대에 얼굴을 많이 알린 유명인으로서의 명성을 잘 활용했던 것이다.

만약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한이 공동 유치하기 위해선 세계스포츠 무대에서 탁월한 경기력으로 능력을 발휘할 월드클래스급 스타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에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연아, 정성옥과 같이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고 남북한 스포츠의 상징적인 스타로 자리잡으면 남북한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32 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해선 남북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명분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계 스포츠에 자리잡은 월드클래스급 스타의 명성과 남북스포츠의 위상도 이에 못지않게 큰 비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 월드클래스 스타 육성은 어떻게 할까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무하마드 알리, 2008 베이징 올림픽 리닝, 2012 런던 올림픽 세바스찬 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김연아 등. 이들은 역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 성화 점화나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통해 올림픽의 감동을 전해준 월드 스타들이다. 1960년 로마 올림픽 복싱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흑백 차별정책에 불만을 품고 올림픽 금메달을 강물에 집어던지는 기행으로 유명한 알리는 프로로 전향해 1960~70년대 세계헤비급의 최강자로 전성시대를 열었다. 은퇴이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투병중이던 알리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떨리는 손으로 올림픽 개막을 알리는 점화장치에 불을 붙여 인간 승리의 감성을 전해주었다. 1984년 LA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중국의 세계적인 체조 스타 출신 리닝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성화를 든 채 와이어에 매달려 경기장 상공을 비행한 뒤 성화에 불을 붙였다. 1988 서울올림픽 육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10여년간 세계 중장거리를 석권한 영국의 세바스찬 코는 ‘문화 올림픽’으로 가장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2012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세계육상연맹 회장까지 이끌고 있다. 김연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데 이어 성화봉송 최종주자를 맡기도 해 전 세계인들에게 이름이 오르내렸다.

월드클래스 스타는 비단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기력에서 탁월한 업적을 올렸을 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인들의 귀감이 되고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을 통틀어 그동안 많은 국제대회 우승자가 나왔으나 김연아, 정성옥 등이 월드클래스 스타로서 존재감을 인정받았던 것이다.

자타가 인정하는 월드클래스 스타 탄생은 그만큼 힘들고,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남북한 스포츠는 앞으로 올림픽 유치뿐만 아니라 올림픽 메인 무대에서 화려한 감동을 안겨줄 월드스타를 육성하는데 크게 주력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이 장기 전략을 세워야하며, 특히 취약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중

량급 유망주를 집중 발굴해야 한다. 월드 스타를 키울 유망 종목으로는 기본 종목인 육상, 체조, 수영과 격투기 종목인 레슬링, 유도, 복싱, 태권도, 구기 종목인 탁구, 핸드볼, 여자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과 동계종목인 쇼트트랙, 빙상, 피겨 등을 지목해 볼 수 있다. 육상은 단거리 보다는 중장거리, 특히 정성욱과 같이 여자 마라톤과 5천M, 1만M 등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체조 등은 역대 남북한이 모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남한 양학선, 북한 배길수, 리세광)를 배출했던 만큼 월드시타 탄생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영에선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이후 남한 수영의 대가 끊어진 상황이나 선수층을 두텁게 하면서 경기력 수준이 높아지면 남북한 모두 '제2의 박태환' 출현은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레슬링, 유도, 복싱, 태권도 등은 남북한 모두 전통적인 메달밭 역할을 했던 올림픽 전략종목인데, 기회가 되면 언젠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를 석권하는 월드시타의 등장은 가능하다. 탁구, 핸드볼, 여자축구 등 나머지 종목 등은 세계적 수준과 차이를 보이는 하지만 개인 또는 단체전 등에서 출중한 기량을 갖춘 선수가 등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편이다. 남북한 모두 세계적인 경기력을 갖춘 동계 종목에서 쇼트트랙, 빙상, 피겨 모두 세계적인 선수들의 등용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국적을 바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3관왕에 오른 '빅토르 안' 과 같은 성공신화를 꿈꾸는 유망주들이 남한은 물론 북한에도 끊이지 않는다는 점은 희망적으로 평가해볼 만하다.

핵심은 남북 양측이 공동으로 여러 종목에 걸쳐 유망주를 찾아내 최상의 훈련여건을 만들어 본격 운영해 나가는 것이다. 지난 1991년 일본 지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은 남한의 현정화와 북한의 이분희를 주축으로 혼합팀을 구성, 합동 강화훈련을 통해 팀워크와 기량을 키워 강적 중국을 꺾고 여자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경험을 갖고 있다.

남북한 스포츠, 탈아시아 경기력 확보 필요

남북한이 올림픽을 함께 개최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양측의 경기력도 같이 키워야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국가의 경기력을 비롯한 준비상황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세계 각국으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력은 한 나라의 스포츠 국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올림픽 개최국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8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메달 순위에서 3위를 기록,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24년만에 2위 자리를 일본에 내줬다. 대회 개막 전 금메달 65개 이상, 6회 연속 종합 2위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2년 뒤 2020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의 강력한 도전에 추월을 허용했던 것이다. 일본은 금 75개, 은 56개, 동 74개로 합계 200개를 돌파(205개)한 반면 한국은 금 49개, 은 58개, 동 70개 등 합계 177개를 따는데 그쳤다. 격차는 금메달 26개, 도합 28개나 된다. 한국이 하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50개에 도달하지 못한 건 1982 뉴델리 대회 이후 36년 만이다.

하지만 남북한 메달 총계를 합하면 일본의 총 메달수를 앞지른다는 점은 특기할만했다. 북한은 금 12개,

은 12개, 동 13개로 합계 37개를 따내 남북단일팀 메달 성적(금 1개, 은 1개, 동 2개)을 합하면 남북한이 금 62개, 은 71개, 동 85개, 합계 218개로 총 메달 수에서 일본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앞으로 남북한이 힘을 모아 종목별 경기력을 키워 나간다면 일본을 넘어서 중국에 도전할만한 탈아시아 수준을 넘어서는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1984 LA 올림픽에서 세계 10강에 진입하는데 성공해 자신감을 키웠으며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종합 4위를 차지한 이후 2016 리우 올림픽까지 세계 10강의 지위를 흔들림없이 지켜왔다. 북한은 한국보다는 훨씬 뒤지기는 하지만 체조, 레슬링, 복싱, 유도 등에서 여러 금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순위 20위권에서 맴돌았다.

그동안의 올림픽 성과 등을 통해 볼 때, 남북한이 강세종목 위주로 경기력을 키워나간다면 아시안게임은 물론 올림픽에서도 중국, 일본 등과 버금가는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이 최근 육상, 수영 등 기초 종목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격투기 종목인 레슬링, 유도, 복싱 등에서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격투기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스포츠 경기력은 한번 불이 붙거나 분위기를 타면 급상승하는 특징이 있다. 여자 골프에서 박세리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박세리 키즈' 등의 등장으로 골프 경쟁력을 확보했고, 남녀 양궁에서 세계적인 유망주들이 줄을 이어 나가며 양궁 강국의 면모를 수십년간 지켜왔듯이, 남북한이 힘을 모아 취약한 종목을 보완하고, 강세 종목을 더 강하게 키워나간다면 남북한 스포츠의 탈아시아는 결코 꿈만은 아닌 현실의 목표가 될 수 있다. 남북한이 탈아시아적인 월등한 경기력을 확보해 올림픽 유치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

남북스포츠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서 남북 공동 입장과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교류의 길을 활짝 열었다. 남북한은 이어 7월 평양 남북통일 농구대회, 9월 창원 세계사격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서는 카누, 조정, 여자 농구 3개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해 사상 최초로 금 1, 은 1, 동 2개의 메달을 수확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 11월 4일 열린 남북체육회담서 남북은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공동으로 전달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2020년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단일팀 출전을 위한 실무적 문제를 IOC 및 종목별 국제경기단체들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남북체육 교류를 본 궤도에 올려놓고,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해 매진하자는 의미이다.

그동안 북한 스포츠는 한국보다 풍부한 스포츠 자원을 갖고 있지 않았다. 오랫동안 은둔과 고립을 자초했던 북한은 외환부족으로 인해 국제대회도 가려서 출전해야만 했다. 세계화의 흐름에서 밀린 북한은 한국과의 스포츠 경쟁에서 한참 뒤졌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 스포츠무대에서 결코 자신감을 잃지 않

는 모습이었다. 성적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선수들은 충분히 훈련이 됐고, 경기력 수준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지난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선수단을 처음으로 취재를 한 이후 1991년 세계청소년 축구 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1999년 통일농구대회 등 많은 대회에서 뛰어난 북한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을 만나면서 북한 스포츠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관찰할 수 있었다. 북한 스포츠가 기대보다는 많이 뒤떨어져 실망하기도 하면서 잠재력만큼은 결코 만만치 않음을 확인했다.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까지 한때 한국보다 우세한 경제력을 앞세워 스포츠에서 앞선 전력을 발휘했던 자존심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앞으로 남북한이 스포츠 교류를 활발하게 해나간다면 북한 스포츠는 많은 발전을 이루며 국제경쟁력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본격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스포츠 용어와 스포츠 문화 등 오랫동안 단절과 분리로 다른 운영실태를 보인 부분들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맞춰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올해 북한 표준시를 3년만에 국제적인 기준으로 다시 통일한 것은 스포츠 교류를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하다. 스포츠에서 시간과 계량화의 통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대로 고치지 않고 한국 시간보다 30분 늦은 북한 표준시를 계속 고집했다면 적지않은 혼선과 혼란이 일어나 교류에 많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남북한 경기 용어들의 통일도 시급한 과제이다. 북한 스포츠 용어는 ‘주체적 표기법’에 의해 대부분 한글로 이뤄져 국제 스포츠 용어가 대부분 영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북한은 영어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우리 말로 바꿔 부르고 있다. 종목 이름을 보더라도 아이스하키는 빙상 호케이로, 필드 하키는 지상 호케이로 각각 표현한다. 축구는 슛을 차넣기, 패스는 연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하는 농구는 국제물과 다르게 적용한다. 8점슛 제도는 경기 종료 2초전에 슛을 성공시키면 8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자유투를 실패하면 1점을 감점하는 규정도 있고, 3점 라인 밖에서 슛을 던져 림이나 백보드를 맞지않고 깨끗하게 들어갈 경우 4점슛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스포츠’라고 매도하며 야구를 즐기지 않지만 야구 용어로 투수는 넣는 사람, 번트는 살짝 치기로 부른다.

언어의 통일은 정상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하물며 국제 룰이 정해진 스포츠에서 용어의 통일은 선수들 간 생각과 사고를 같이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동안 남북한이 오랜 세월 서로 떨어져 각기 국제대회 등에 참가하며 대립과 반목을 거듭했지만 본격적인 교류를 위해선 용어의 통일, 적극적인 소통 등이 이뤄져야 한다.